

제6실 | 서예 | 일본의 옛 경전

N13-1: 범망경

감색 종이에 금니(아교에 금가루를 갠 것)로 경계선을 그은 사경 용지에 『범망경』을 필사한 것입니다.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고금목록초』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가 쓴 것이라고 전하지만, 실제로는 헤이안시대 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무렵의 감색 종이에 금색 글자로 쓴 경전은 일부 조각으로 남아 있는 사례는 있지만, 두루마리 형태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해지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귀중합니다.

N14-1: 불명경

『불명경』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염불의 힘으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여러 부처들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외위돌 것을 설파하는 경전입니다. 인도의 승려 보리류지가 번역한 12권본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불명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권으로 구성되며 각 권마다 부처의 이름이 천 개씩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권의 간기를 통해 1141년에 오사(절의 사무를 담당하는 다섯 명의 승려) 중 한 명인 류케이가 스승인 린코 대사의 1주기에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명회를 개최하고 이 경전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N9 경질

경권을 말아두는 데 쓰던 물건입니다. 여러 색으로 염색해 끈 실을 짠 색부터 옅은 색 순으로 배치하고 가늘게 깎은 대나무 줄기를 엮었습니다.

제6실 | 염직 | 다양한 염직 기법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염직 기법’을 테마로 호류지에 전해 내려온 염직품의 다양한 기법을 망라하여 소개합니다. 아스카시대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다양하게 꽃피운 염직 미술의 세계를 감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힐

실이나 끈으로 견직물을 부분적으로 묶은 다음 그 부분만 물들지 않게 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홀치기염색 기법입니다.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주로 요라고 불린 깔개의 안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I-336-5 녹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I-336-7 청색 바탕 이중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I-336-8 감색 바탕 격자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I-336-13 담갈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I-336-16 녹색 바탕 메유이무늬 홀치기염색 평직 비단

협힐

목판 2장에 대칭형 무늬를 판 뒤, 그 사이에 견직물을 끼우고 강하게 눌러서 판이 밀착한 부분만 물들지 않게 하는 기법입니다. 목판에는 무늬 부분마다 구멍을 뚫어 여러 색의 염료가 새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선명한 무늬가 표현됩니다.

I-336-19 적색 바탕 화훼무늬 협힐염색 나(羅)

능직 비단

보통 평직물의 날실과 씨실이 한 가닥씩 번갈아 교차하는 것에 반해, 능직 비단은 규칙적으로 실을 건너뛰어 무늬를 표현한 직물입니다. 아스카부터 나라시대에 걸쳐 기하학적인 무늬에서 구상적인 무늬로 발전했으며, 주로 용이나 봉황 등 다채로운 무늬를 표현했습니다.

I-336-28 흰색 바탕 두 마리 용과 이중 연속된 구슬 원무늬 능직 비단

I-336-34 흰색 바탕 꽃가지 넝쿨무늬 능직 비단 번죽

I-336-39 적색 바탕 두 마리 새와 연속된 구슬 원무늬 능직 비단

I-336-42 녹색 바탕 꽃무늬 능직 비단

I-336-46 옥색 바탕 일곱개의 원과 연속된 거북이 등껍질무늬 능직 비단

경금

고훈시대 후기부터 나라시대 초기에 걸쳐 행해진 오래된 기법으로 날실에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하는데 그 중 필요한 색을 의도적으로 표면에 띄워 무늬를 표현합니다. 한 가지 색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여러 색의 색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색을 사용할 수 없고 무늬도 비교적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 I-336-44 줄무늬 바탕 꽃무늬 비단
- I-336-61 다색 바탕 바둑판과 꽃무늬 비단
- I-336-65・66 적색 바탕 꽃과 새, 연속된 구슬 원무늬 비단
- I-336-69 담갈색 바탕 두 마리의 봉황과 연속된 구슬 원무늬 비단
- I-336-77 녹색 바탕 꽃무늬 비단

위금

여러 색의 실을 씨실로 사용한 직물입니다. 일본에서는 나라시대 이후 발전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베틀에 처음부터 끼워져 있는 날실과 달리 자유롭게 색실을 조합할 수 있어서 다채롭고 큰 무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336-72 황색 바탕 당화무늬 비단
- I-336-81 줄무늬 바탕 마름모무늬 비단

여러 색 직물

여러 색의 실을 꼬아 만든 실인 모쿠이토를 사용한 색다른 직물입니다. 명주처럼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 I-336-87 여러 색 가로줄 무늬 비단
- I-336-88 여러 색 가로줄 무늬 비단

전

양으로 추정되는 동물의 털을 적셔서 압력을 가해 건조한 다음 털끼리 뭉쳐서 만듭니다. 오늘날의 펠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 색으로 물들인 털을 끼워 무늬를 표현했습니다.

- I-336-107 흰색 바탕 꽃무늬 전